‘파산위기’ 일촉즉발 위니아딤채, 기사회생하나

“탄원 많고 생산 의지”… 재도의 회생신청 가능성

회생절차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인수협상 파국을 맞은 위니아딤채(위니아)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들을 만난 노조와 채권단 사이에서는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가능성이 거론돼 당장 파산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지회와 위니아 채권단 등에 따르면 노조와 채권단, 매각주관사, 사측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전담 판사를 만났다.

지난달 31일 인수협상 결렬에 이어 오는 23일로 예고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회생법원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장 1년 6개월 기한의 회생절차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잇단 탄원과 공장내 생산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원은 ‘당장 파산선고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채권단은 법원의 이같은 의사를 일종의 회생절차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는 23일 법적 기한이 도래한 회생절차를 마치고 2차 회생절차를 밟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불인가 결정 확정으로 회생절차에서 퇴출됐으나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과 다른 회생계획으로 채권단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가능성, 다수 채권자들이 재도의 회생절차에 동의해 권리 행사 제약을 감수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받아들여진다.

재도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업가치 재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위니아의 기업 가치는 800억원대 후반으로 추산됐으나 이는 재고 등을 포함해 산정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생산직 인원 전부가 퇴직 연금에 가입돼있지 않고 관리직도 절반에 가깝다. 파산하거나 필요한 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매각될 경우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매각될 수 있도록 노조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회생절차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부 소문은 퍼져있다. 다만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봐야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위니아는 모기업의 경영 위기에 2023년 10월 서울회생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같은해 12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유찰을 겪어왔다.

올해 초 사모펀드인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인 광원이엔지가 손을 잡고 위니아 인수에 나섰으나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2차례 계약이 모두 무산됐다.

광주시와 국회, 광주상의는 위니아 매각 무산 위기에 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회생절차 기한 연장을 촉구해왔다.

광주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위니아는 현재 노동자 한 명당 최대 8000만원의 체불 임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권철 기자

광주 우치동물원, 기린 이야기. 사진=광주시청 제공

‘동물들의 이야기’… 우치동물원 해설 프로그램

광주 우치공원의 동물들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수의사와 사육사가 동물의 특성 등을 해설하는 특별기획 프로그램 ‘동물원 이야기’를 다음달 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물원 이야기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청금강 앵무새와 함께하는 ‘동물원 산책’, 기린사육사가 들려주는 ‘기린 이야기’, 수의사와 함께하는 ‘동물친구들의 어제와 오늘’ 등으로 구성됐다.

동물원 산책은 청금강 앵무새 ‘마리오’를 직접 동반해 교육이 진행되며 기린이야기는 사육사가 기린과 함께 기린의 생태적 특징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동물친구들의 어제와 오늘은 수의사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동물들의 건강검진 현장을 체험한다.

동물병원 회진 시간에는 실제 진료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최근 생을 마감한 하마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한다.

동물원 이야기 프로그램은 우치동물원 누리집을 통해 운영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프로그램은 동물의 건강관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물을 신기하게 살펴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깨닫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주사치료→발목장해’ 2심도 의료과실… 배상 책임은 40%

환자, 의료진에 낸 손해배상 소송서 2심까지 승소

1심 “의료진 과실 탓에 감염 발생 또는 악화 인정”

2심 “감염경위 단정못한다”… 배상책임 90%→40%

무리한 주사 치료 탓에 영구 장해를 갖게 됐다고 주장한 환자가 의료진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1심은 의료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90%로 봤으나 항소심은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최창훈·정현식·김수양)는 A(55)씨가 모 병원 정형외과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의료진이 공동으로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액을 1심이 인정한 1억8191여만원(지연손해금 별도)에서 감액한 8251여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다시 정했다.

A씨는 49세였던 2019년 11월부터 한달새 병원에서 양쪽 무릎 연골 부분절제·봉합술을 차례로 받았다

의사는 입원 기간 중 A씨가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자 주사 치료를 했고 이듬해 1월부터는 입원 재활 치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왼쪽 발목 통증이 이어지자 의사는 A씨에게 6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주사 치료를 했다. 발목 손상 부위에 대한 수술을 3차례 했지만 감염이 악화돼 A씨는 결국 대학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았다. 대학병원 측 신체 감정 결과 A씨는 왼쪽 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영구 제한되는 장해 판정을 받게 됐다.

A씨는 “증상·정도에 대한 적절한 진단 없이 왼쪽 인대 봉합·보강수술, 양측 무지외반증 교정술 등을 하고 반복적으로 발목 주사 치료를 해 감염이 발생 또는 악화하게 한 과실이 있다. 주사 치료의 부작용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는 일실수입(장해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배상액으로 2억여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병원 의료진의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사 치료에 대해선 “용법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실시한 잘못을 저질러 감염 발생 또는 악화, 영구 장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90%로 제한했다.

또 주사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다른 치료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 역시 위반, A씨가 주사 치료를 받을 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사 치료법이 구체적인 주사 주기, 투여량 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는 최소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주사 치료 전후 수술 여부 등을 고려해 주사 치료를 했어야 했다. 주사 치료와 해당 부위 감염에 따른 A씨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진료상 과실이 감염 자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도 감염 재발률이 15~20%에 달하는 점, A씨가 주사 치료 이전부터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등 기저질환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의료진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사 치료 관련 설명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후유 장애 정도, 주사 치료 경위, 설명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A씨가 동의했을 가능성 등을 참작해 위자료도 정했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4880만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덜미… 전액 회수

광주 광산서, 40대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광주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40대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4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청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은 B씨 등 3명에게 488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체포 당일 B씨를 포함해 전남 여수와 광주 북구에서 B씨 등의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품권 판매 대금 수거 아르바이트인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저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단에 전화를 걸었다. 사기단은 대출을 위해선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B씨를 속였다.

이들에게 속은 B씨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A씨에게 현금 16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는 112에 이를 알린 뒤 A씨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등으로부터 수거한 현금 전액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고액 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다른 번호로 경찰에 신고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행 기자

전남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첫 ‘AI 생중계’

전국 체육대회 최초 농구경기 도입… 실시간·다시보기 가능

전남도가 전국 규모 체육대회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생중계를 진행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목포종합경기장을 포함한 20개 시·군 58개 경기장에 총 818회선, 681대의 통신시설을 구축, 원활한 경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KT를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 경기장 실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에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이동통신 기지국과 공개형 대용량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또한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통신망을 이원화하고, 기지망을 분리 구축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AI 스포츠 중계방송을 처음으로 농구경기에 도입해 생중계한다. AI 기술로 촬영된 경기 영상은 네이버 스포츠, 유튜브, OTT어플에서 실시간,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AI 생중계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중 최초다.

모든 정보통신 인프라는 대회 2일 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대회 하루 전부터는 KT와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황병은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전국 대회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해 생활체육 발전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 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